

연예뉴스 스테이션

지성, SBS 새 수목극 '판파라' 주연 캐스팅



지난해 MBC 드라마 '킬미, 힐미'로 주목받았던 배우 지성(사진)이 SBS 새 수목극 '판파라'로 돌아온다. SBS는 4월 첫 방송하는 '판파라'의 주인공 신석호 역으로 배우 지성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파라'는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이사로 승승장구하다 배신과 음모로 몰락, 작은 신생기획사를 운영하는 신석호의 성공 이야기이다. '돌아와요 아저씨' 후속으로 방송될 '판파라'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집필한 유영아 작가가 대본을 맡았다.

김희철·하니 '주간아이돌' 합류...3MC 체제



정형돈의 방송 중단으로 데프콘 혼자 진행해온 MBC에 브리워 '주간아이돌'의 새 MC로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왼쪽 사진)과 EXID의 하니(오른쪽)가 발탁됐다. 17일 MBC에브리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데프콘과 함께 3MC 체제로 프로그램을 이끈다. '주간아이돌'은 정형돈이 방송을 중단해온 약 4개월 동안 그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정형돈과 친분이 있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릴레이로 빈자리를 채워왔다. 김희철과 하니는 정형돈의 복귀 전까지 MC를 맡는다.

SM "슈퍼주니어 러욱, 6월14일 현역 입대"



그들 슈퍼주니어의 러욱(사진)이 6월14일 입대한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7일 밝혔다. 러욱은 이날 입대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1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한다. SM 측은 러욱이 조용히 입대하기를 희망해 입소 부대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욱은 1월 첫 솔로앨범 '어린왕자'를 발표해 사랑받았으며 6회에 걸친 첫 솔로 콘서트를 매진시켰다. 현재 KBS 쿨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DJ로도 활약 중이며, 22일부터 방송하는 MBC에브리원 '아주 사적인 TV'에도 출연하는 등 입대 직전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팀발랜드 '쇼미더머니' 특별 심사위원 참여

저스틴 팀버레이크, 마돈나, 제이지 등 음반을 프로듀싱한 미국 힙합계 스타 프로듀서 팀발랜드가 5월 엠넷 '쇼미더머니5' 미국 예선에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엠넷이 17일 밝혔다.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5'가 시즌 사상 최초로 미국 L.A에서 해외 예선을 실시하는 가운데 19일 미국 L.A 코로넬DTLA에서 1차 예선을 진행한 뒤 21일 2차 예선까지 실시한다. 팀발랜드는 1차 예선 합격자가 진출하는 2차 예선에서 특별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유니크 성주, 중대 '신기한 시간여행' 캐스팅



한중합작 남성그룹 유니크(사진)의 성주가 4월20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중국 후난위성 TV 드라마 '신기한 시간여행'에 출연한다. 17일 유니크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따르면 성주는 '신기한 시간여행'에서 주인공 가내량의 10년 전 아역으로 출연하며, 중국 인기 여배우 임신여와 함께 중국과 일본에서 촬영하고 있다. '신기한 시간여행'은 과거로 여행할 수 있는 신기한 사진기에 얽힌 이야기다.

공연 랭킹

3월 11일~3월 17일 자료:인터파크 1위 공연 정보보기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마타하리>	옥주현
2	뮤지컬 <헤드윅>	윤도현
3	뮤지컬 <맘마미아!>	최정원
4	뮤지컬 <아마데우스> - 내한공연	미켈란젤로
5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유준상
6	뮤지컬 <아랑가>	강필석
7	2016 어른이 뮤지컬 난쟁이들	정동화
8	뮤지컬 <명성황후> 20주년 공연	김소현
9	연극 <지구를 지켜라>	이을
10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	송용진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송중기

‘태양의 후예’ 日 공략 ‘제2의 겨울연가’ 될까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가 일본에서도 심상치 않다.

'태양의 후예'가 6월 일본 CS채널 위성극장에서 '타이요노마즈에이(太陽の末裔)'라는 제목으로 현지 시청자를 만난다. 국내에서 한창 방송 중인 4월 홍콩 ViuTV에서 방영하는

‘형도 뜨고 아우도 뜨고’ 송중기·박보검의 우애

친형제 같은 두 스타

‘태후’ ‘응팔’ 통해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 같은 소속사...연기 조연·고민 함께 나눠

최근 가장 뜨거운 시선을 모으고 있는 연기자들 중 누구일까. 단연 송중기와 박보검이다. 두 사람은 아마도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최고의 흥행스타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각 주연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최고 시청률 28.5%)와 케이블 채널 tvN '응답하라 1988'(19.6%)을 무대로 활약했거나 혹은 한창 열정을 내뿜고 있다.

송중기와 박보검은 연예기획사 블루섬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가장 '핫한' 스타들답게 대중의 관심을 모으며 16일 오후 소속사 공식 홈페이지를 일일 트래픽 초과로 인해 다운시킬 정도로 상당한 '스타파워'를 자랑한다.

두 사람의 남다른 관계는 평소 일상으로도 이어진다. 연기 조연이나 고민 등을 함께 나누며 허물없이 지낸다. 한술밥을 먹는 두 사람이 같은 시기 나란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평소에도 마치 친형제처럼 막역하게 지내며 서로를 챙기고

있다.

두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를 치켜세우며 '배울 게 많은 형과 동생'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최근 송중기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6 스타일 아이콘 아시아'에서 "그 친구(박보검)를 보면 많은 걸 생각하게 된다. 작은 부분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누구나 배워야 할 것 같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박보검 역시 최근 스포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송)중기 형과는 돈독한 사이다. 형이 군대에 있을 때도 제 드라마를 모두 챙겨보고 조언하며, 힘들 일은 없는지 세심하게 신경써준다"며 "언젠가 꼭 한 작품에 출연해 보고 싶다. 소속사 식구로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연기 선배로 만나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보검은 19일 밤 '태양의 후예' 속 송중기가 연기하는 유시진 대위의 말투를 따라하며 "제가 형을 많이 좋아하지 말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들의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정말 끈끈하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박보검

‘공대 아랍이’ 홍인영, 5월5일 결혼한다

예비신랑은 회사원...비공개 결혼식



'공대 아랍이'로 유명한 연기자 홍인영(31·사진)이 '5월의 신부'가 된다.

봄 결혼 시즌을 맞아 박정아, 김하늘, 김정은 등 스타들의 결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인영의 결혼 소식까지 더해져 연예계가 '잔칫집' 분위기다.

17일 한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홍인영은

5월5일 서울에서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이 관계자는 "오래 사귀 남자친구와 결혼한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홍인영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며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영은 최근 절친한 일부 지인들에게만 결혼 소식을 알리고, 직장이나 친한 친구 등 결혼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170cm의 큰 키와 서구적인 이목구비가 인상적인 그는 한 이목구비 CF에서 '공대

아랍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CF여신'으로 떠오른 인물. 지난해 SBS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에서 주연한 하지원과 라이벌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2001년 가수 이승환의 '잘못' 뮤직비디오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에 첫 발을 들여놓은 그는 사극 '천추대후'를 비롯해 드라마 '당돌한 여자' '근초고왕' '대왕의 꿈' '일편 단심' '민들레' 등에 출연해왔다.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온 만큼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태연, 단독 콘서트 '대세 솔로' 굳히기

내달 정규앨범 발표 후 콘서트 진행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입지 강화

소녀시대 태연(사진)이 여성 아티스트로서 '대세 솔로' 굳히기에 나선다.

태연은 4월 첫 정규앨범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펼친다. 앨범 발표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콘서트는 4월23·2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연다. 이에 따라 작년 미니앨범 이후 12월 소녀시대-태티서, 2월 디지털 싱글에 이어 4월 정규앨범까지 두 달 간격으로 음반을 내는 공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태연은 앞서 작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연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한 자사 가수들의 릴레이 콘서트 브랜드 '디 아지트'에서 이번 콘서트가 진정한 의미의 첫 '단독 콘서트'가 된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 정규앨범을 내고 단독 콘서트를 벌인다는 것은, '소녀시대'가 아닌 '태연'이란 브랜드로 온전히 승수를 띄우는 것이란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을 모은



다. 2007년 데뷔한 소녀시대가 활동 10년차를 지나면서 걸그룹으로서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멤버들은 저마다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기다. 태연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막강한 힘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10월 첫 솔로음반이자 미니앨범 'I'를 발표, 그해 솔로 여가수 중 음반 판매량 1위, 디지털 음원 종합차트 3위(가온차트 집계)를 기록했다. 엠넷 'MAMA' 등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가수상도 휩쓸었다. 아이유 이후 대형 여성 솔로가수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태연의 이 같은 활약은 단연 돋보이는 성과로 평가됐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마마무, 팬들 뜻대로 팬들과 함께

팬들이 제안한 의상 입고 무대 올라 굿즈 공동개발 등 팬들과 콜라보도

최근 가요계 대세로 떠오른 여성그룹 마마무(사진)의 남다른 팬 사랑법이 화제다.

마마무는 지난 주말인 11~13일 팬들이 스타일링한 의상을 입고 KBS 2TV '뮤직뱅크'와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까지 지상파 방송 3사 음악방송에 출연해 '년 is 뭘' '무대'를 선사했다. 인터넷 팬카페에 팬들이 올린 무대 의상 시간들을 검토해 마마무 멤버들이 세 작품을 선택한 것이다. 팬들의 반응이 좋고 마마무 멤버들도 만족감이 높아 이달 중 다시 한 번 팬들에게 무대 의상 스타일링을 맡겨볼 예정이다.

마마무는 작년 8월 싱글 신곡 '음오아예' 활동이 끝나가던 무렵 팬들이 디자인에 참여하는 굿즈도 공동개발한 바 있다. 당시 마마무 측은 팬들을 상대로 모자, 티셔츠, 장바구니 등 디자인을 공모했고, 일부는 정식 제품으로 개발해 현재 팬카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마마무 측은 디자인에 참여한 팬들의 지적재



산권을 인정해 매출액 가운데 소정의 액수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마마무의 이 같은 컬래버레이션은 '마마무는 팬과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소속사 RBW 관계자는 17일 "마마무는 팬 덕분에 지금과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팬들이 마마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마무는 2014년 2월 개설한 공식 팬카페에 17일 현재 6만2856명의 회원을 보유, 여성 그룹 중 6번째로 큰 팬덤을 갖고 있다.

김원겸 기자